

캄보디아 UBF 역사 보고_ 서이삭 선교사

요절: 로마서 15: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2023년 많은 죄와 허물 속에서도 변함 없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UBF 에 이루신 놀라운 새 일과 하나됨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역사를 정리하며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2023년 캄보디아 UBF 역사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 죄와 허물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이나 다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 드립니다. 부족한 발표이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루시고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캄보디아 UBF 에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보여 주셨습니다. 2023년 태국 아시아 지부장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저는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로마서 15:6말씀을 주일 광고 때마다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5:6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동역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요셉 선교사님을 통해 시작된 간호대학 개척 역사는 시난 페트라 목자를 열매로 허락하셨습니다. 시난 페트라 목자는 누가복음 5장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4월 부활절 수양회 때 목자 선서를 하였습니다.



올 해 초 시난 페트라 목자의 동생 티다 자매님이 어머니와 함께 프놈펜에 와서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또 같은 마을의 친척 뻘씨 자매님도 예배에 오게 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지방 양들에게 프놈펜은 새로운 곳이었고 장막에 머물며 신앙도 배우고 대학도 다닐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였습니다.

자매 장막이 1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사무엘상 전반부 말씀을 공부하고 초신자를 위한 18단계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뻘씨 자매님의 초청으로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리다, 깐히은 형제님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뻘씨 자매님과 티다 자매님은 친구들을 예배에 열심히 초청하였습니다.

4월에 부활절 수양회를 가지며 좋은 숙소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 말씀도 들으며 시난 페트라 목자님이 선서를 한 것을 축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캄보디아에 시카고 서요한 선교사님을 보내시고 이를 통해 이드림 2세 선교사가 시카고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또 캄보디아 개척을 섬겨 주신 화랑센터 윤폴 목자님도 보내 주시고 프놈펜 35개 대학 개척의 기도제목도 주셨습니다.

8월에 캄보디아 UBF 여름 수양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다, 삐쎌이, 리다, 끘히은, 썸본 형제 자매님들이 참석하여 소감을 나누고 삶도 나누었습니다.

수양회 주일 메세지는 시난 삐뜨라 목자님이 막 8:29 주는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여 양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4학년 선배들의 소감과 세족식도 가졌습니다. 이후로 리다 형제님이 주일 사회자로 섬기기 시작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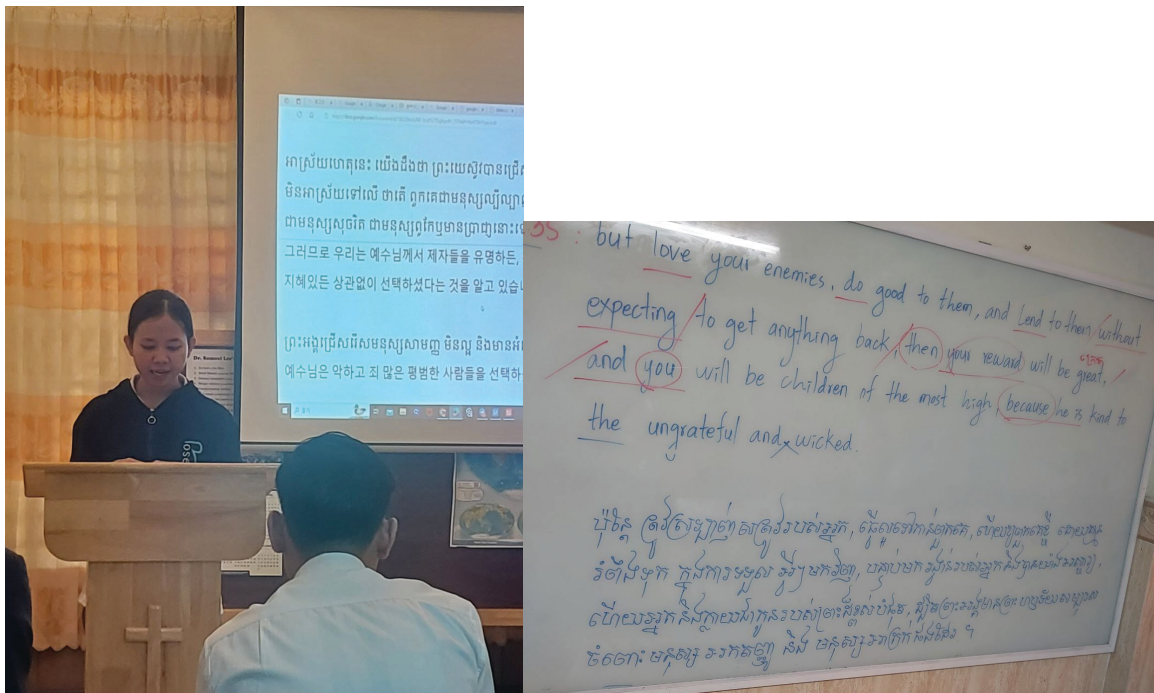


9월에는 캠퍼스 기도모임도 하고 형제 장막 시작을 시작하여 리다, 끘히은 형제님들이 좋은 곳에서 살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주일 말씀공부(총 5강) 통해 복음에 대해 배웠습니다.
현재 저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루디아 선교사님 작성 헌금을 계기로 지난 페트라 목자가 1학년 후배들을 위해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이들은 매주 영어로 요절을 암송하여 발표합니다.



10월부터 형제장막, 자매장막 각각 매일 성경읽기 기도모임을 갖고 있고 이요셉 선교사님께서 늘 이들을 섬겨 주십니다. 페트라 목자는 1학년 GBS도 인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학년 양들의 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고 시엠립에서 프놈펜에 왔습니다. 그 때 친척들과 어머니들까지 오셨는데 총 17명이 오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교도 방문하고 바베큐 파티도 참석하여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티다 자매님의 사촌 동생인 고3 씨양 자매님과 행킴 자매님도 예배에 오기 시작하여 이제 1학년 양들은 후배를 섬기는 목동 훈련을 받고 있으며 사도팀 1기라는 팀 이름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사도팀 4명이 성장하고 시난 페트라 목자님이 목자로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루디아 선교사님들의 부모님들께서 소천하셨지만 헌신적으로 캄보디아 역사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요셉 선교사님께서 늘 양들과 함께 하는 사랑으로 양들의 아버지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예배 반주와 주일 서빙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재정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4년 기도제목

- *선교사님 세 가정의 합심 동역
- *시난 페트라 목자의 국가고시 합격과 직장. 장래 방향
- *사도팀 (티다, 빼씨이, 리다, 김힌)의 성장과 학과 공부 승리

*고3 학생들이 장막 생활하며 예수님을 알아 가도록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마디: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